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그렇소.’ (1846년 8월 26일 김대건 신부님 옥중 서한)

오늘 원네 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에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불타올라 마치 누룩처럼 세상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류는 지난 2년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막 닥친 비대면 사회 안에서의 격리와 이별,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생각을 했으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 희년을 기쁘고 뜻깊게 지내고자 애써 왔습니다. 그 한 방법으로 가난한 나라의 이웃 형제들을 위해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교우 여러분과 사회 일반인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부터 3개년의 여정으로 “공동합의적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세계 주교시노드 개막 연설에서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위험요소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로 형식주의(formalism)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주교시노드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사나 사건이 되지 않고 참으로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는 진정한 영적식별 과정이 되도록 내실을 다지라는 당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지주의(intellectualism) 또는 지성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또는 지성적으로만 생각하여 교회의 모든 문제들과 세계의 악들에 대해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실 안주(complacency)의 유혹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과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 왔습니다.”(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33항) 하고 말하며, ‘바꾸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태도가 바로 현실 안주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교황님께서 경계하라는 이 세 가지 위험 요소는 이번 시노드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일상에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매년 11월을 위령성월로 지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 곁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과 행복의 시작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삶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순교한 신앙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지내며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이 천주교인이오?”라고 물으면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소.”라고 대답할 결심과 함께, 믿음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것임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내년에 우리는 새 교구청을 완공합니다. 새뜻한 새 교구청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백균철 바오로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



제 1 독 서 1열왕 17,10-16
화 답 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 2 독 서 히브 9,24-28
복 음 마르 12,38-44 또는 12,41-44

주일 진레

죽음 생각

프랑스 베네딕도회의 클리니Cluny 수도회 오딜로Odilo 원장은 998년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정해,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했다. 이런 관습이 보편화되면서 교회는 대사를 선포하며 11월을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는 ‘위령성월慰靈聖月’로 지내도록 했다.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이면서, 동시에 불확실한 진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아무도 죽음 앞에서 예외일 수 없고,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파스칼의 명상록 『팡세pensees』에 있는 말이다.

“40명의 사형선고를 받은 자들이 있다고 하자. 어느 날, 그들 중 한 사람이 죽으러 가는 모습을 나머지 39명이 쳐다보고 있다. 며칠 후 38명이 보는 가운데, 다른 한 명이 끌려간다. 또 나중에는 3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끌려 나간다.”

이러한 장면은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 죄수들이 사형의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 역시 세상이라는 교도소에서 언젠가 있을 사형 집행의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 있게 아직 죽을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조만간에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만 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마태 25,1-13는 ‘열 처녀의 비유’이다.

비유에서 혼인 잔치는 하늘나라이고, 등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기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고, 신랑은 하늘나라의 주님이다. 슬기롭고 어리석음의 기준은 준비에 있다. 기름이 있는 처녀들은 언제라도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들은 게을렀기에 준비하지 못했다. 신부와 함께 있는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일은 매우 부끄러운 것이다.

등불을 켜는 일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에서 가능하다. 나태한 학생이 시험을 잘 볼 수 없다. 기술의 습득도 인격의 함양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지금보다 나중에, 오늘보다 내일로 미루며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랑의 실천도, 신앙생활도, 희생과 봉사도 형편이 좁아지면 하겠다고 미루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이 될 것이다.

하루하루를 깨어 있으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지금부터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도 하고, 희생하며 기도도 해야 한다. 주님 말씀을 실천하며 작은 일에도 충실해야 한다. 그러할 때 하늘나라의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등불을 켜 들고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될 것이다.

호스피스hospice 병동의 봉사자들에 의하면, 임종 직전에 가장 많이 하는 세 마디는 ‘그때 좀 참을걸’, ‘그때 좀 베풀걸’, ‘그때 좀 열심히 살걸’이라고 했다.

삶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죽음은 영생永生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잘 살아야 한다. 특별히 위령성월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 그러면 언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늘나라의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조율

유희선 가타리나 시인/ 가톨릭 문인회

티브이프로그램 '새가수'를 통해 '조율'이라는 노래를 들었다. 북유럽 감성을 입힌 아름답고 고운 선율이었다. 노랫말에 귀를 쫓긋 세웠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오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 번 해 주세요

인간이 저지른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곡이었다. 엉망진창 만들어놓은 지구를 '하늘님'께 은근슬쩍 떠넘기고, 실상은 기적을 바라는 듯 보였다.

성경에서(마태 8,22-25)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 오버랩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그런데도"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제자들 마음이 훤히 보인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얇은 믿음에 대한 반성보다는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시키는 기적을 보고 더 놀라워했던 것 같다. 어쩌면 오늘날의 기도 속에서도 신은 늘 잠에서 깨어나지 않거나 기적을 행하는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조율調律이라는 단어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본다. 조율은 피아노 건반의 모든 음을 제 고유의 표준음에 맞추는 일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표준음으로부터 음 이탈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조율사는 어긋난 음을 고르며 정확한 음을 찾아가는 작업을 한다. 태생적인 본래의 것으로 되돌아가는 부단한 노력이 아닐 수 없다. 노래 가사처럼 꽃들이 알고 있고, 철새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다. 신이 우리 각자에게 심어준 씨앗이 무엇이었는지, 잠재된 소명을 꽃 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기적으로 직행하기 전까지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혼의 변질 또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주일을 지키는 하나의 절대적 형식 또한 인류가 지구상의 최상위의 종種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단 7일을 버티지 못하고 음 이탈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상상한 적 있었다. 그만큼 나약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거실에는 객지에 나간 딸의 피아노가 있다. 조율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처럼 추억 삼아 치는 딸의 피아노 소리는 듣기 거북할 정도이다. 언젠가부터 성당에 나가지 않는 딸이나, 아무 강요도 하지 못하는 내 모습처럼 어정쩡하다. 피아노가 '있을 곳'도 더는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다. 물건도 사람도 제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부터 다시 시작이다. 한 음 한 음 정확한 조율을 넘어 조화와 기적이라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거리두기

김용태 마태오 신부/ 대전교구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 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마르 3,9-10)

코로나로 공동체 미사가 전면 중단되었을 때의 어느 날인가 텅 빈 성당에 홀로 앉아 무심코 복음서를 들춰이던 중 특별히 눈에 들어왔던 대목이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래아 호숫가로 물러가셨던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당신께로 밀려들자 호수에 거룻배 한 척을 띄우시고 그 위에 오르시어 마치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보듯 호숫가에 모여 있는 군중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 다른 아닌 ‘거리두기’가 아닌가!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요즘 예수님의 이 모습은 거리두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한다. 피하는 거리두기가 아닌 살피기 위한 거리두기, 멀어지는 거리두기가 아닌 다가가기 위한 거리두기, 각자 살아가는 거리두기가 아닌 함께 살아가려는 거리두기다. 그리고 보면 거리두기란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교육지책이기 이전에 이미 우리 모습 안에 자리하는 삶의 원리 같은 것이란 생각이 든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이 때에 하루빨리 상황이 진정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이 시대 모든 이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단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으로의 회복을 염원하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의 거리두기를 복음의 빛으로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거리두기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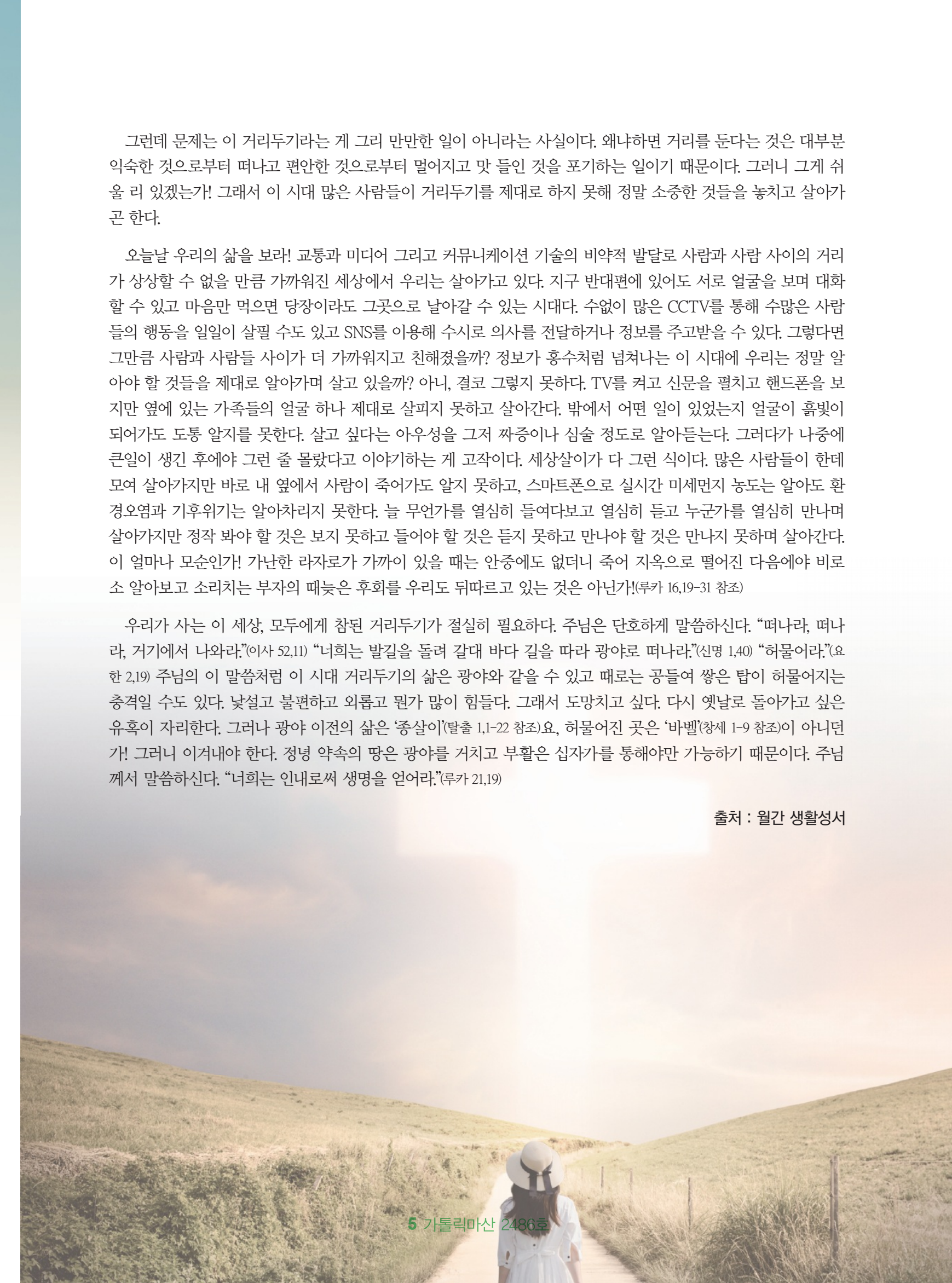
가까이 있으면 잘 보이고 멀어지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우리 삶에는 그 반대인 경우가 존재한다. 거룻배의 예수님과 호숫가의 군중처럼,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잘 보이지 않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만 제대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바짝 붙어 있을 때는 알 수 없다가 한 걸음 물러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 복잡한 길 한가운데에서는 길이 잘 보이지 않지만 길에서 떨어져 높은 곳에서 굽어보면 복잡한 길들이 한눈에 들어와 길이 잘 보인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당사자보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그 판을 더 잘 읽을 때가 있다. 승부욕의 중심에 있을 때보다 거기서 한 걸음 물러서 있을 때 전체적인 상황이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하는 피정도 거리두기를 신앙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라 할 수 있다. 피세정념(避世靜念)의 줄임말인 피정(避靜)은 말 그대로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 속 일상과 잠시 거리를 두고 벗어나 주님 안에 고요히 머물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면서 미처 살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피정이라는 거리두기를 통해 살피고 깨닫게 되는 거다. 이처럼 거리두기라는 것은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 안에 자리하면서 우리가 대상을 바르게 보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피하고 멀리하고 분리하는 거리두기가 아니라 살피고 만나고 어우러지기 위한 거리두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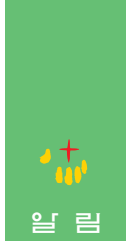
그런데 문제는 이 거리두기라는 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거리를 둔다는 것은 대부분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고 편안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맛 들인 것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게 쉬울 리 있겠는가!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곤 한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라! 교통과 미디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진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시대다. 수없이 많은 CCTV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일일이 살필 수도 있고 SNS를 이용해 수시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만큼 사람과 사람들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친해졌을까?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아가며 살고 있을까? 아니, 결코 그렇지 못하다. TV를 켜고 신문을 펼치고 핸드폰을 보지만 옆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 하나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살아간다.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흠뻑이 되어가도 도통 알지를 못한다. 살고 싶다는 아우성을 그저 짜증이나 심술 정도로 알아듣는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이 생긴 후에야 그런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게 고작이다. 세상살이가 다 그런 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아가지만 바로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알지 못하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는 알아도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늘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열심히 듣고 누군가를 열심히 만나며 살아가지만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고 만나야 할 것은 만나지 못하며 살아간다. 이 얼마나 모순인가! 가난한 라자로가 가까이 있을 때는 안중에도 없더니 죽어 지옥으로 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알아보고 소리치는 부자의 때늦은 후회를 우리도 뒤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루카 16,19-31 참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두에게 참된 거리두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떠나라, 떠나라, 거기에서 나와라.”(이사 52,11) “너희는 발길을 돌려 갈대 바다 길을 따라 광야로 떠나라.”(신명 1,40) “허물어라.”(요한 2,19) 주님의 이 말씀처럼 이 시대 거리두기의 삶은 광야와 같을 수 있고 때로는 공들여 쌓은 탑이 허물어지는 충격일 수도 있다. 낯설고 불편하고 외롭고 뭔가 많이 힘들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자리한다. 그러나 광야 이전의 삶은 ‘종살이’(탈출 1,1-22 참조)요, 허물어진 곳은 ‘바벨’(창세 1-9 참조)이 아니던가! 그러니 이겨내야 한다. 정녕 약속의 땅은 광야를 거치고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9)

출처 : 월간 생활성서





교구장 동정

용원성당 봉헌식

일시: 11월 13일(토) 10:30
장소: 용원성당 성전

교구/본당

예신, 여성소 모임

일시: 11월 14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52차 선택주말

일시 및 장소: 11월 14일(주일) 12:00~18:00
북신동성당(마산↔통영 차량 운행)
준비물: 미사준비, 필기구, 개인컵 등
문의: 장혜민 리마 010-4288-2698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양종동(대전 안드레아), 안소희(마리아)

담당판사: 김정훈(도미니코) 신부

장소: 교구 법원

일시: 11월 14일(주일)까지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11월 기도모임

일시: 11월 22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코로나19 외국인주민 통역 서비스

교구 내 외국인주민의 코로나19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외에도 본당
내 외국인주민들과 기업체 외국인에게 도움
이 필요한 경우 창원이주민센터로 연락해 주
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가능언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인도어, 터키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테툼어)

문의: 교구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기타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11월 14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또는 비대면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일시: 11월 20일~22일/ 11월 26일~28일/

12월 3일~5일/ 12월 11일~13일/

12월 30일~2022년 1월 2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회원동본당 제24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회장: 박경래(안토니오)

사목협의회회부회장(남성): 전봉기(안토니오)

사목협의회회부회장(여성): 강정신(로사)

총무분과위원장: 이주수(프란치스코)

시설담당: 김천일(프란치스코)

교육담당: 임정화(올리나)

홍보담당: 제외숙(소피아)

재경분과위원장: 박병건(그레고리오)

전례분과위원장: 왕영숙(요안나)

선교분과위원장: 손금자(루시아)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김덕순(빅토리아)

구역분과위원장: 안봉순(그라시아)

청소년분과위원장: 정미애(라파엘라)

성소분과위원장: 김정임(마리아)

마산교구 법원 이용 안내

혼인과 관련된 일들로 성사 생활이 어려운
신자들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하십시오.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010-7123-4506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마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제주성지 순례 3일/ 4일

11. 15.(월)~18.(목)/ 11. 22.(월)~24.(수)

11. 26.(금)~28.(주일)/ 11. 29.(월)~12. 1.(수)

■한국성지 167 완주

11. 29.(월)~12. 2.(목) 전주·광주대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Anna Organ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225

신항만 부영 3단지 307동 104호

문의: 010 6409 4809

백합식품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정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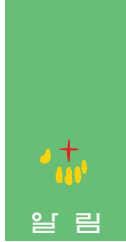
백합 매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본사 053)857-2037

서울 02)02-2202-8392

대구 053)257-1771

http://spcfood.co.kr



망경동본당 사무장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신자,
PC 사용이 능하고 운전면허1종
소지자 우대
접수: 11월 28일(주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응시원서, 본당 사제 확인서,
교적사본 (응시원서 망경동성
당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
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주소: 경남 진주시 천수로 152번길 24
망경동성당(우 52714)
문의: 본당 사무실 055·756·5680
※ 1차 서류전형 후 2차 면접(면접일자
개별통보)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후 안전하게 폐기함



기억할 선종 사제
최동오(아타나시오) 신부
2009년 11월 9일



기억할 선종 사제
김병운(라이문도) 신부
1998년 11월 13일

故 김병운 라이문도 신부 23주기 추모미사

일시: 11월 13일(토)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2022학년도 살레시오성미유치원 신입 원아 모집

입학상담: 10월부터~11월까지
대상: 2016. 1. 1.~2018.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접수: '처음학교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문의: 살레시오성미유치원 055·297·6104
홈페이지: www.sungmi.org
※차량운행지역: 소담동, 중동, 서상동, 동정동,
도계동, 팔용동, 북면(감계, 무동아파트단지)

제10회 성경잔치(경시대회) 수상자 명단

- ▶ 성경잔치 최우수본당 대상: 태평동성당
- ▶ 성경 경시대회(시서와 지해서)
- 대상(2명): 양한희 노엘라(옥포본당),
천경선 리나(월영본당)
- 최우수상(5명): 송미현 안젤라(월영본당),
강민채 세실리아(덕산동본당),
강향숙 크리스티나(상남동본당),
진귀남 켄마(상남동본당),
강명주 스테파니아(북신동본당)
- 우수상(4명): 박선아 소화데레사(거제본당)
최은정 수산나(거제본당)
진선미 바울라(대방동본당)
홍현경 유스티나(삼계본당)
- 장려상(4명): 이정호 요셉(사파동본당)
박남수 마자렐로(칠암동본당)
박소미 정혜엘리사벳(북신동본당)
윤상현 요셉(양덕동본당)

용원성당 성전 봉헌식

일시: 11월 13일(토) 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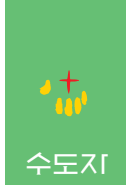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여러분의 도움으로
새 성전을 지어 하느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용원성당 055 · 551 · 8416

후원계좌: 농협 355-0055-8911-23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함께 걸어가는 교회, Synodalitas!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세계주교시노드의 사무총장 마리오 그렉(Mario Grech) 추기경님께서 관상수도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낸 서한이 몇 주 전에 저희 수정 공동체에도 도착하였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지역 교회에서 개막하여 2023년 10월 로마에서 주교 시노드 개최로 폐막하는 3년 과정의 세계주교시노드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형제자매들을 대신하여 기도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여정의 영적 차원에 모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온 교회와 지역 교회의 생활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식별하는 법을 아는 데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청합니다.” ‘기도의 허파’가 되어 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여정’을 뜻하는 시노드(Synod)는 전 세계의 교구들, 국가들, 대륙들에서 평신도 형제자매들, 남녀 수도자들, 사제들, 주교들 그리고 로마의 주교인 교황님이 다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 각자의 삶을 함께 나누시는 하느님의 방식으로 서로가 만나고, 경청하고, 식별하는 ‘영적 식별의 여정이자 교회적 식별의 여정’입니다. 이 대장정이 지난 10월 10일 로마,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시노드 개막 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의 언어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 대한 뜨거운 사랑의 불을 지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은총의 사건’인 이 세계주교시노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음은 얼마나 감사로운지, 교황님께서 우리 가톨릭교회의 목자이심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교황님께서서는 이날 강론에서 만남, 상호 경청, 식별에 관해 다루시며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초대하십니다. 사람을 만나는 데 늘 열려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는 시간을 내어 주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는 ‘만남의 기술’에 있어 전문가들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참된 만남이 되려면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교회, 모든 민족, 모든 국가의 질문, 고통, 희망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의 도전과 변화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말고, 우리의 확실성도 감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니다. 많은 경우 확실성은 우리를 폐쇄적으로 만드니까요. 하여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자고 거듭 당부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만남과 상호 경청은 우리를 예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말씀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내면을 바라보며 말씀의 빛으로 식별하게 해 주시므로, 하느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기를 위해 우리 자신을 비우고, 세속적인 것, 우리의 닫힌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주교시노드 여정 안에서 이 만남의 은총, 상호 경청의 은총, 식별의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하십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하느님 백성의 세계주교시노드 여정을 통해, 제삼천년기에 하느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만남과 상호 경청, 식별의 은총을 가득히 얻어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